

송 지사 “지역강점 살려 혁신성장 이뤄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

미래농업 분야 등 3대 분야 6개 사업 정부에 요청
김동연 부총리 등 부처 장관들, 적극 지원 약속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의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에게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강력 요청했다. <관련사진 3면>
송 지사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혁신경제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 혁신 협력체계 구축과 생활 지역발전형 인프라 구축,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의 안건 발표와 혁신성장 관련 자유토론과 스탠딩 리셉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지역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공고화와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지역 주도형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등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생활지역발전형 인프라 구축지원 방안과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에 대해

예산실장과 차관보가 각각 발표하였으며, 혁신성장 관련 토론을 이어갔다.

송하진 도지사는 미래농업과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신성장동력 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관련 6개 핵심선도사업의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미래농업분야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사업’의 5대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주요 기관이 농림부, 과기부, 농진청 등 여러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지사는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 5대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농생명 산업 가치사슬이 완성 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줄 것과 선도사업으로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 등 3건에 국비 28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

이율러 주력사업의 체질개선과 관련해서는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로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타 심사기간 단축과 선도사업으로 자율주



“잘 익은 여주예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8일 정읍시 정우면 아름드림 팜 여주 농장에서 농장주 부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여주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행 실증도로 조성을 위한 국비 95억 원을 건의했다.

이어 신성장동력 분야로 “조용함 홀로그램 융복합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신기술분야 제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R&D 실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실증 의무화 제도 도입과 지역

참여 실증 가점 제도 도입을 건의하면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과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으로 각각 국비 5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전북에서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관들은 지역과 함께 정부의 혁신성장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현안들이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성 기자

옛 추억의 놀이터 공간을 실개천으로 조성

전주시,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 일환 이달 말까지
인근 주민 요청에 11월까지 ‘태평소 부는 아이’ 조형물도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관광경쟁력을 키우는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거주민과 관광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존 추억의 놀이터 공간을 실개천과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총 3억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기존 추억의 놀이터를 개선해 공터였던 이곳에 실개천이 흐르고 연못과 조경 등이 설치되며 체류형 관광객 확보를 위해 아름다운 야경

을 연출한 조명이 설치된다. 시는 또 관광객들에게 불거리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11월까지 조형물도 설치 할 계획

이다. 이 조형물은 태평소 부는 아이로 전주한옥마을의 전통 이미지와 잘 어울리게 설치 될 예정이다. 시는 또 과거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전주한옥마을 인근 오목

대 아래 쌍시암(쌍샘)을 복원하고 주변에 시민과 관광객이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실개천이 흐르고 아름다운 조형물이 설치되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

텐츠를 보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관광지이자 시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기반시설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옛 창작예술공간은 한옥마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알려 줄 역사관으로 탈바꿈했으며, 역사관 앞 주차장 공간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바뀌었다. /송효철 기자

여야 ‘짬짓돈’ 특활비 영수증 처리 ‘양성화’

해외출장도 제동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8일 ‘짬짓돈’ 등으로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야는 또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전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 하에 제도개선 소위를 뒀서 특별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영비, 특수목적비 등으로 전환해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특활비 자체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을 두기로 합의했다. 외부인사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며, 국외활동심사위원장은 이들 중 한 명으로 할 방침이다.

이율러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 등 현재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협상 중인 법안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서는 9월 정기국회 시 에너지 특위에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뉴스

의회의 **임실군의의회**

군민의 소중한 뜻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의회**

열린의정! 으뜸의의회!

IMSIL-GUN COUNCIL

임실치즈테마파크